

베토벤·윤이상·바버 음반 발매

광주시향·임윤찬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이하 광주시향)이 창단 47년 만에 처음으로 유니버설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의 레이블을 달고 ‘베토벤, 윤이상, 바버’ 음반을 발매했다.

이번 음반은 공연 실황 앨범으로 지난 10월8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반 클라이번 최연소 우승자’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선보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가 수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임윤찬이 앙코르로 연주한 뫼포우 ‘정원의 소녀들’, 스크리아빈 ‘2개의 시곡’ 중 1번, 음악 수첩 등 3곡이 함께 포함됐다.

우승 후 첫 DG 레코딩 레퍼토리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임윤찬은 “이 곡에 베토벤이 그토록 원했던 유포피아와 자유,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며 “광주시향 단원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기에 정말 잊지 못한 공연으로 남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휘를 맡은 홍석원 광주시향 예술감독은 지난해 송년음악회에서 임윤찬과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함께 연주하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임윤찬의 연주로 반한 홍석원은 이듬해 함께 작업을 요청했고, 이번 실황 앨범이 탄생했다.

홍 감독은 “광주시향이 윤이상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 ‘광주여 영원히’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의를 가지는 것인데, 그 실황 연주가 음

반으로 남으니 정말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된다”며 “창단 첫 실황 녹음 음반을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DG에서 발매하게 돼 기쁘다. 제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준 협연자, 단원들과 함께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제작에 함께 참여한 임윤찬에 대해서는 “지난해 첫 협연 당시 연주했을 때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어 놀랐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

시향 창단 47년 만에 첫 실황녹음 베토벤 협주곡 5번 ‘황제’ 등 담아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공식 수록

하는 피아니스트”라며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점이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앨범에는 작곡가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가 담겼다. 국내에서는 2005년 2월 윤이상 평화재단 발기를 기념해 발매한 앨범에 87년 음원이 수록된 바 있다. 광주시향은 2007년 공연 당시 이 곡을 연주, 비상업적 용도로 녹음한 바 있으나 정식 발매 앨범에 이 곡을 연주해 수록하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광주시향 소속 광주시향이 공식적으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를 녹음한 첫 음반이 됐다.

한편, 광주시향은 12월 오티움 콘서트와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2023년 1월 여수 예술마루 초청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월 미국 샌 안토니오시 초청 ‘토빈 센터’에서의 공연과 휴스턴 총영사관 주최로 진행되는 ‘정전 70주년 기념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향과 임윤찬 실황앨범 커버 사진



노문삼자의 노사학계승과 현대적 의의

내일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세미나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김종재)는 오는 2일 오전 9시30분 광주향교 유럽회관 대강당에서 ‘노문삼자의 노사학계승과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병철



조우진



김봉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노사 기정전진’의 학문과 사상 계승을 위한 세미나에 이어 노사학과 거장으로 불리는 대곡 김석구, 노백현 정재규, 일신재 정의림 3대 제자들의 학문을 통한 노사학 계승과 현대적 의의를 규명하는 자리다.

노문삼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노사 선생 생전에 이미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문인들로, 폭넓은 강학뿐 아니라 그 학맥을 20세기 후반까지 유지해오는 기틀을 마련했다.

영남에서는 정재규, 호남에서는 정의림 등에 의해 노사의 학문이 계승돼 호남과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학파내의 결속을 다지고 노사학맥의 지속적인 계승에 큰 역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는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봉곤 노사학 연구원장이 ‘대곡 김석구의 성인지향론과 노사학 정립’, 전병철 경상대 교수가 ‘관선계강약을 통해 본 노백현 정재규의 강학 운영 방침’, 조우진 전남대 교수가 ‘정의림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형성 전남대 교수, 함영대 경상대 교수, 정영수 조선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김종재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시대정신을 학문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했던 노사학과 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호남 유학의 문화적 유산과 정신세계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피아노모 정기연주회 ‘12월의 향연’

3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전문 피아니스트 연주단체 피아노모(회장 이주영) 연주회가 오는 3일 오후 3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2010년 창단한 피아노모는 매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테마가 있는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7명의 연주자와 함께 아듀 2022 12월의 향연 ‘Music Letter to You’를 주제로 2022년을 보내고 20

23년을 맞이하는 공연을 펼친다.

글리에르, 드보르작, 인판테, 빌베그, 구스타비노, 생상스, 미요, 가르델, 모차르트, 루트스라브스키, 레거, 그리고 피아졸라의 곡을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명, 또는 두 대의 피아노에서 네 명이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아코디오니스트 김소미와 함께 하는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과 겨울’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탕고 음악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영어오페라 ‘피노키오’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어릴적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던 피노키오 이야기가 영어오페라 공연으로 펼쳐진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일 오후 7시30분, 3일 오후 3시~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영어오페라 ‘피노키오’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 영국 부지&호크스 출판사와 독점계약을 맺은 영어오페라 ‘피노키오’ 2018년 버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원작은 1883년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이며,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란젤로 발티노니가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

이번 공연 예술감독과 지휘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주현이, 연출은 안진성이 맡았다.

출연진으로는 바리톤 공병우(제페토 역), 소프라노 정수희(요정 역), 소프라노 김재이·조안나(피노키오 역), 베이시 구대웅(극장장 역), 소프라노 박선경(루치올로 역), 테너 류승민(잠치 역), 테너 여혁민(여우 역), 소프라노 최지은(할리퀸 역), 메조소프라노 김유정(푸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영어오페라 ‘피노키오’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치넬라 역), 소프라노 김제희(고양이 역) 등 지역의 노련한 성악가와 신진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성공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최근 ‘헤이지니 럭키강이’를 제작, 연출하며 연출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안진

성의 연출 포인트다.

박주현 지휘자는 “음악과 영어는 리듬과 억양 등에 유사점이 많다. 단원들에게 항상 합창과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단원들이 문학과 언어, 음악을 성숙하게 배우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제품

New 씨알-렉스

남자한테~ 표현하기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씨알-렉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개월분(60포) : 198,000원→148,000원

(주) 보람약품

주 문: yuhanbio@naver.com

네이버 카페 씨알렉스 검색

택배비: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나는)

시·군 대리점모집

광주 본사: 010-4624-5046

전북지사: 010-7704-2490